

## Belfer-EAI-PKU/GVI Seoul Conference

# 동아시아 핵 경쟁과 확산 가능성 대응: 미래 한반도 질서 구축을 위한 한미중 협력방안

## 모시는 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한 해 기록적 미사일 도발과 공세적 핵전략을 담은 핵 무력 정책 법 발표에 이어 올해에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은 급격하게 핵탄두 보유수를 늘리며 미국과 본격적 핵경쟁에 나서는 한편 대만에서 군사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규모의 연합훈련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한미동맹과 적 기지 공격용 미사일 도입을 포함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일본의 대응을 촉발하며 한반도를 전형적인 나선형 악순환 구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교수)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Belfer Center)와 중국 북경대 및 귀관 싱크탱크(国观智库, Grandview Institution) 안보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격화되는 미중 핵 경쟁과 북핵 위기 속 새로운 미래 한반도 안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동아시아 핵 경쟁과 확산 가능성 대응: 미래 한반도 질서 구축을 위한 한미중 협력방안(Nuclear Competition and Escalation Pathways in East Asia: Seoul-Washington-Beijing Cooperation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서울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통일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NK (Global NK: Zoom & Connec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충돌과 공멸에서 공생의 한반도 질서로 전환하기 위해 한미중 석학들이 대면회의로 직접 만나 지혜를 모을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시간	순서	세부내용
09:30-9:50	개회식	
09:30-09:35	환영사	손열 원장(EAI;연세대 교수)
09:35-09:45	축사	권영세 통일부 장관
09:50-11:10	<p style="text-align: center;"><b>[1세션]</b></p> <p style="text-align: center;"><b>“핵 경쟁과 동아시아 안보위기: 한미중 대북정책과 군사충돌 시나리오”</b> 사회: 하영선 이사장 (EAI, 서울대 명예교수)</p>	
09:50-10:30	발제 (각 1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튜 번 교수(하버드대 케네디스쿨)</li> <li>● 자칭귀 교수(북경대)</li> <li>● 박원곤 소장(EAI 북한연구센터; 이화여대 교수)</li> </ul>
10:30-10:55	토론 (각 7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 박 국장(하버드대 벨퍼센터)</li> <li>● 장투어성 주임(귀관 싱크탱크)</li> <li>● 김인한 교수(이화여대)</li> </ul>
10:55-11:05	질의응답	발제자, 토론자, 청중
11:10-12:20	<p style="text-align: center;"><b>[2세션]</b></p> <p style="text-align: center;"><b>“한반도 미래 질서 구축과 대타협의 길 : 전략소통, 확장억제, 핵 비확산 분야 협력”</b> 사회: 손열 원장 (EAI, 연세대 교수)</p>	
11:10-11:50	발제 (각 1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윌리엄 토비 소장(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li> <li>● 오우양웨이 부주임(귀관 싱크탱크)</li> <li>● 전재성 소장(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서울대 교수)</li> </ul>
11:50-12:05	토론 (각 7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칭귀 교수(북경대)</li> <li>● 프란체스카 지오바니니 국장(하버드대 벨퍼센터)</li> <li>● 김태형 교수(송실대)</li> </ul>
12:05-12:20	질의응답	발제자, 토론자, 청중

※ 본 행사는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